

Top Issue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이 '세계의 이정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28층 108m 높이 훈민정음 기념탑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Erecting the great script Hoonminjeongeum as a milestone of humanity

Building a 28-story, 108-meter-high Hoonminjeongeum Memorial Tower to play a symbol of Korea



글 | 백중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음력으로 1443년 12월, 조선초 세종대왕이 우리글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다. '백성(民)을 가르치는(訓) 바른(正) 소리(音)'라는 뜻을 지닌 훈민정음은 28개의 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글자에 속해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간 글이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했던 일반 민중에게 큰 도움이 되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문자 체계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 훈민정음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과학적으로도 현대에 높게 평가를 받고, 역사학적으로도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창제년도와 창제자,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문자인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데 반해 국내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과 그 지식에 대한 정확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Top Issue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박재성 이사장
Hoonminjeongeum Commemorative Association /
President Jaesung Park

훈민정음 창제 원리 및 창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훈민정음에 대한 자긍심과 국제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는 훈민정음의 위대한 가치를 재 발견하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 및 창제 정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해 문자 강국의 자긍심을 전승하고, 훈민정음의 우수성 선양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2021년 2월 25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훈민정음에 대한 자긍심과 훈민정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 시키고자 한다. 한글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70여 개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문자의 창제원리와 창제자는 물론 창제 연도를 알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자로 이를 정리한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박재성 이사장은 “훈민정음은 창제자와 창제 연도 및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전통 사상인 음양오행과 천지인 원리가 담겨있는 우주 자연의 문자입니다.”라며, “또 사람의 발음 기관을 반영하여 만든 문자로서 바람 소리, 학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는 물론 닭의 울음소리 등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우수한 문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만큼 사업회에서는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하고, 훈민정음을 보유한 문자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전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사업회는 이러한 훈민정음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원하고 경천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창제된 점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기리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훈민정음의 훌륭함이 전파되는 것은 물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양성되어 나가고 있다.

In December 1443, King Sejong the Great created the Korean alphabet, Hoonminjeongeum. Hoonminjeongeum, which means 'correct sound that teaches the people,' is composed of 28 words.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y to read and write as it belongs to phonetic characters. It was a great help to the then ordinary Koreans who had difficulty reading and writing and it became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we currently use today.

Understanding the creation of Hoonminjeongeum and its pride and value

The Hoonminjeongeum Commemorativ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February 25, 2021 with the purpose of rediscovering the great value of Hoonminjeongeum, passing on the pride of Korea as a writing powerhouse, and promoting its excellence through proper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the principles and spirit of its creation. In particular, the Association, a corpora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ims to spread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benefits of the Korean alphabet. Hangeul is the only alpha-

세계최고의 문자강국 대한민국에는 훈민정음 기념탑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훈민정음 탑 건립은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은 물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대역사업입니다.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실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후원방법 :
1. CMS(지동이체) 후원 방법 :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 후원 및 기부금 동참 클릭 → 안내페이지에서 CMS연결 클릭
2.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방법 : 국민은행 698901-01-189544(예금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3. 기부금 관련 문의 : 010-9130-9539, 031-287-0225 / 이메일 hmju119@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021-0007호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www.hoonminjeongeum.kr

창제자 · 창제연도 ·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위대한 분자 !!

문자강국 대한국민의 자긍심을 담은
훈민정음탑 건립 범국민 동참운동

세계 최초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은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보존과 함께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훈민정음 기념탑을 건립하여 세계민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범국민 동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의 상징을 타는 에펠탑을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대한민국은 훈민정음탑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훈민정음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훈민정음 해설사 양성위해 자격시험, 대학 등 다양한 사업 운영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현재 사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훈민정음 백일장, 훈민정음 독후감 공모대회, 훈민정음 서문 암송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훈민정음 관련 도서 발행 및 보급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훈민정음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연수 및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원리 이해 및 문자강국 자긍심의 발현을 위해 '훈민정음 과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표음문자인 '훈민정음' 28자의 제자원을 지도하고 창제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상식 등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자가 훈민정음의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의 전 영역에서 지도나 상담자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더해 문자 문화관광 대국 실현을 위해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훈민정음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훈민정음대학원대학교는 훈민정음해설사를 양성하고 훈민정음 창제정신에 따른 정확한 어문 생활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석박사 과정으로 훈민정음학, 문자문화학, 문자예술학, 문자복원학 등 4개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bet among the 70 or so in existence in the world whose creation principles, creator, and year of creation are known. Hangeul is recognized for its originality in expressing almost all sounds, and Hoonminjeongeum, which organizes Hangeul, is recognized worldwide for its value. "Hoonminjeongeum is the character of the universe and nature, which contains the principles of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s of traditional Eastern thought. It is a superior character designed to reflect the human articulatory system and to accurately write down all the sounds of the world, such as the sound of the wind, the crane's call, the dog's bark, and the chicken's crowing," explains Jaesung Park, President of the Hoonminjeongeum Commemorative Association. The Association is engaged in various projects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principles, and to pass on pride, and to make it a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Top Issue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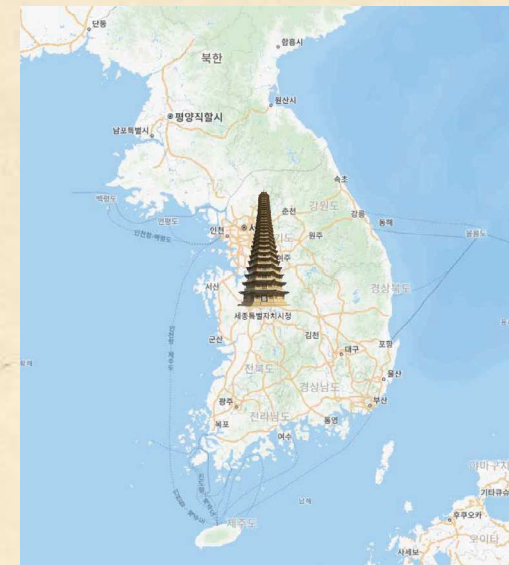
사업회는 다양한 사업으로 훈민정음의 뜻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박 이사장은 “국내의 학자들은 시 시대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훈민정음의 진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한 문자로 인정받는 훈민정음을 만든 민족, 위대한 문자를 쓰는 민족, 훌륭한 문자를 전한 민족의 자랑스러운 후예로서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훈민정음 기념 위해 창제 기념탑 건립 추진 우리 글 우수성 알리는 이정표 될 것

한편, 사업회에서 창립 시기부터 최중요 사업으로 삼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의 건립이다. 현재 한글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조성할 것으로 계획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은 천년 앞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28층, 108m 높이의 탑으로 건축되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총수인 28층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 수인 28자, 108m는 훈민정음의 서문 108자를 각각 의미하며, 이를 통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 또한 건립의 목적이다. 건축물 외부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8각 목탑 기법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내부는 현대 건축 공법을 활용하여 각종 훈민정음 연구 및 자료 그리고 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또 기념탑 인근을 한글문화도시 상징인 명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이 건립되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족·애민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훈민정음이 멸실공히 세계 문자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뛰어난 문자임을 만방에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사업회는 이번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던 훈민정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를 통해 훈민정음이 지닌 문자로서의 역사성과 위대함을 입증하고,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람다

Hoonminjeongeum Instructor Qualification

The Association holds various events and courses: essay contests, calligraphy contests, preface recitations, book publishing and distribution, and commentator qualification exams and training. The qualification exam aims to train personnel who can acquire accurate theoretical knowledge about the creation process of <Hoonminjeongeum Haeryebon> and <Hoonminjeongeum Eonhaebon> and perform the role of instructor or consultant in all areas. As part of these activities, the Association is preparing to build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립 될 세계적인 훈민정음 기념탑!

28층 훈민정음 28자 / 108미터 훈민정음 언해본 어제서문 108자

27층	전통음식점 및 다실	323.97㎡	300.83㎡	세종 전망대	28층
25층	추억관	370.25㎡	347.11㎡	한식문화체험관	26층
23층	전적 연구소 / 고서 전시관	416.53㎡	393.39㎡	역사 박물관	24층
21층	8학사 자료관 / 연구관	462.81㎡	439.67㎡	세종 과학관	22층
19층	훈민정음 창제 조력자 전시관	509.09㎡	578.51㎡	훈민정음 해례/언해관	20층
17층	세종 음악관	555.37㎡	532.23㎡	훈민정음 문학관	18층
15층	뿌리 성씨 자료관	601.65㎡	578.51㎡	훈민정음 명장관	16층
13층	팔도 특설 전시관	647.93㎡	624.79㎡	세계 문자 자료관	14층
11층	우리땅 독도관	694.22㎡	671.08㎡	재외 동포 사랑관	12층
09층	역사 인물 자료관	740.50㎡	717.36㎡	참스승관 / 도서관	10층
07층	대강당 / 공연장	786.78㎡	763.64㎡	충의 인물관 / 대한민국 국방관	08층
05층	연구 및 업무시설	833.06㎡	809.92㎡	소강당 / 연수실	06층
03층	훈민정음 VR / AR 체험관	879.34㎡	856.20㎡	집현전 재현관	04층
01층	입출구 / 정보관 / 기념품전시관 명예의 전당 / 세종대왕 像	925.62㎡	902.48㎡	세종대왕 像(1층에서 연결)	02층
				지하1층-지하5층 전통음식점 및 다실 /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지하

* 각 층의 시설 용도는 건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이번 기념탑을 건립함으로써 그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훈민정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계승을 통해 위대한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건립에 대해 각계에서 축사와 응원 이어져

우리 민족에 자긍심 심어줄 탑 건립에 많은 관심 필요해

한편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은 사회 각계에서 축사와 함께 응원을 받고 있다. 제8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전 총장은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앞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면서 기대를 표했다. 또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연도와 창제자, 그리고 창제 원리가 알려진 문자로서 세계의 전문가들이 입증하여 극찬하는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의 창립은 훈민정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의 세계화에도 매우 많은 이바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사업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으로 설립된 것에 대해서도, 사업회의 목적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게 되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인 첫발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탑 건립에 대해서도 사업회가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상징탑 건립을 목표로 활동해온 노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며,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이 천년 앞을 내다보는 세계 문자의

the Hoonminjeongeum Memorial Tower and establish the Hoonminjeongeum Graduate School. The school plans to open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in Hoonminjeongeum, character culture, character art, and character restoration to foster experts in this specific field. “Scholars home and abroad highly value Hoonminjeongeum as the most rational and scientific writing system even in this time of AI. Therefore, we must cultivate specialized talents who can teach it” points out Park.

Hoonminjeongeum Memorial Tower

The construction of the Hoonminjeongeum Memorial Tower is the most important project of the Association. The tower will be built in Sejong City and will have 28 floors, the number of Hangeul letters, and a height of 108m, representing the 108 letters of the preface of Hoonminjeongeum. I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2028. The exterior of the tower will be built using the octagonal wooden tower technique, a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style, while the interior will be utilized as an exhibition hall using modern

Top Issue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이정표가 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명실상부한 자랑스러운 관광 명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전하며,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의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56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황우여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대표조직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훈민정음을 보유한 문자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자학자들이 찬탄하는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문자 강국입니다.”라며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훈민적음의 애족·애민 창제 정신을 기리는 기념탑이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라며 탑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훈민정음탑을 이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정에도 건립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훈민정음 독후감 공모 시상식

construction methods. “The tower will be a milestone that will inherit and develop the spirit of King Sejong, who created Hoonminjeongeum with which he loved his country and people so much. It will let the world know that Hoonminjeongeum is an excellent writing system that will forever be remembered in the history of world writing,” explained Park.

Congratulations and cheers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serves as honorary chairman of the tower construction organizing committee. He said, “The Association will contribute greatly to promoting Korean pride and elevating the status of a culturally powerful nation by spread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Hoonminjeongeum. I hope that the tower will become a landmark for world writing that looks ahead a thousand years, and also a tourist attraction that symbolizes Korea.” Hwang Woo-yea,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also said, “Korea is not only a developed country with Hoonminjeongeum, but also a country with a strong writing system that is admired by world-class literacy scholars. It is surprising and shameful that there is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과 함께(자신의 저서 '우리말로 찾는 정음자전을 증명하는 박재성 이사장' President Jaesung Park presents his book (Searching for Jeongeumjaejeon in Korean)

다.”라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의 우수성과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이 세종시에 우뚝 서면 역사에 남는 일이 될 뿐”아니라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큰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7대 충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신방웅 세계문자공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라도 백성들이 삶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훈민정음기념탑이 우뚝 서고 세계적인 문자공원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관광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의 상임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이사장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재외 교포들도 자손만대에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still no monument commemorating the spirit. I hope that the monuments will be erect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ard areas across the country in the future so that the next generation can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Hoonminjeongeum and feel pride in it, and I look forward to the enthusiast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all like-minded citizens.”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Choi Min-ho said, “The Hoonminjeongeum created by King Sejong goes beyond simple letters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for humanity, so we will take the lead in publicizing the excellence and spirit of the creation of Hoonminjeongeum. When the Hoonminjeongeum creation monument stands tall in Sejong City, it will not only be a historic event, but also the pride of our nation and a great brand of history.” Shin Bang-woong, chairman of the World Character Park Development Project Promotion Committee and former preside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aid, “We hope that the tower and the park will become tourist attractions that symbolize Korea.” The standing committee chairman Park lastly said, “We also expect great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overseas Korean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 while overcoming harsh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so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Hoonminjeongeum Memorial Tower can be successfully promoted.”

Top Issue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伟大的文字训民正音成为 "世界里程碑"能够屹立不倒

28层108米高的训民正音纪念塔成为大韩民国的象征



对训民正音创制原理及创制的正确理解 积极推广训民正音的自豪感和国际共识

社団法人训民正音纪念事业会(理事长Jae-seong Park)于2021年2月25日成立,目的是重新发现训民正音的伟大价值,通过对训民正音创制原理及创制精神的正确理解和教育,传承文字强国的自豪感,宣扬训民正音的优秀性。

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管辖的社団法人训民正音纪念事业会积极扩散对训民正音的自豪感和对训民正音效用性的国际共识。韩文是全世界存在的70多个文字中唯一能知道文字的创制原理和创制者以及创制年份的文字,几乎可以表现所有声音的独创性得到认可的文字,整理的训民正音在世界上其价值得到了认可。目前事业会正在进行训民正音写作大赛、训民正

音国际书法大赛、训民正音西门背诵大赛等多种文化活动,同时进行训民正音相关图书发行及普及事业,同时为了培养对训民正音的专家,还实施了"训民正音解说员"资格考试,正在进行研修及教育。另外,为了理解训民正音创制原理及体现文字强国的自豪感,正在实行"训民正音科举考试"。这是为了指导"训民正音"28字的制字原理,培养能够传达创制过程历史事实的人的资格考试,旨在学习《训民正音解例本》和《训民正音谚解本》对训民正音创制过程的常识等正确的理论知识,培养学习者在"训民正音"全领域担任指导或咨询者角色的人才。此外,为实现文字文化观光大国,正在准备建立训民正音创制纪念塔,为了设立训民正音研究生院大学,也在积极开展工作。特别是训民正音研究生院大学以培养训民正音解说员,



根据训民正音创制精神,通过正确的语文生活,培养具有继承和发展传统文化能力的优秀人才为目标,计划开设硕士、博士课程,包括训民正音学、文字文化学、文字艺术学、文字复原学等4个学科。

为纪念训民正音,计划建立创制纪念塔 将成为宣传我们文章优秀性的里程碑

另外,从创立时期开始作为事业会最重要的事业,目前正在进行的是训民正音创制纪念塔的建立。目前计划在韩文文化城市世宗特别自治市内建造的训民正音创制纪念塔,由展望千年、象征大韩民国的28层、108m高的塔建成,正在推进中,计划于2028年竣工。楼层数28层是训民正音创制当时的文字数28字,108m是训民正音的序文108字,通过这些,在广泛宣传训民正音的同时,提高韩文文化城市世宗市的地位也是建设的目的。建筑外部将采用韩国传统建筑风格的八角木塔技法建造,内部将利用现代建筑工艺,用于各种训民正音研究、资料和展示馆等,并计划将纪念塔附近打造成象征韩文文化城市的名胜。

各界纷纷表示祝贺和支持 需要很多关心建立能让我们民族感到自豪的塔

另外,训民正音创制纪念塔的建立受到了社会各界的祝贺和支持。历任第8届联合国秘书长的前校长Ki-Moon Ban担任训民正音塔建设组织委员会名誉组织委员长,并期待"社団法人训民正音纪念事业会今后广泛宣传对训民正音的正确理解,为激发文化民族的自豪感,提高文化强国的地位做出巨大贡献。"特别是Ban前秘书长对事业会作为文化体育观光部管辖法人设立一事评价道:"事业会的目的事业在泛政府层面也备受关注,成为了成功执行的历史性第一步。"对于建造塔,事业会高度评价了以建造纪念训民正音创制的象征塔为目标的辛劳,"希望训民正音创制纪念塔能够成为展望千年的世界文字里程碑,成为象征大韩民国的名副其实的旅游胜地",还评价说,建造训民正音创制纪念塔是时代使命。担任常任组织委员长的Park理事长也表示:"希望在全球各地克服恶劣环境,为祖国发展献身的在外侨胞们也能于子孙后代注入我们韩民族的自豪感的训民正音创制纪念塔建设事业成功推进,给予高度关注和参与。"



Top Issue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偉大な文字『訓民正音』が「世界の道しるべ」として堂々と立てるように

28階建て高さ108mの訓民正音記念塔を韓国の象徴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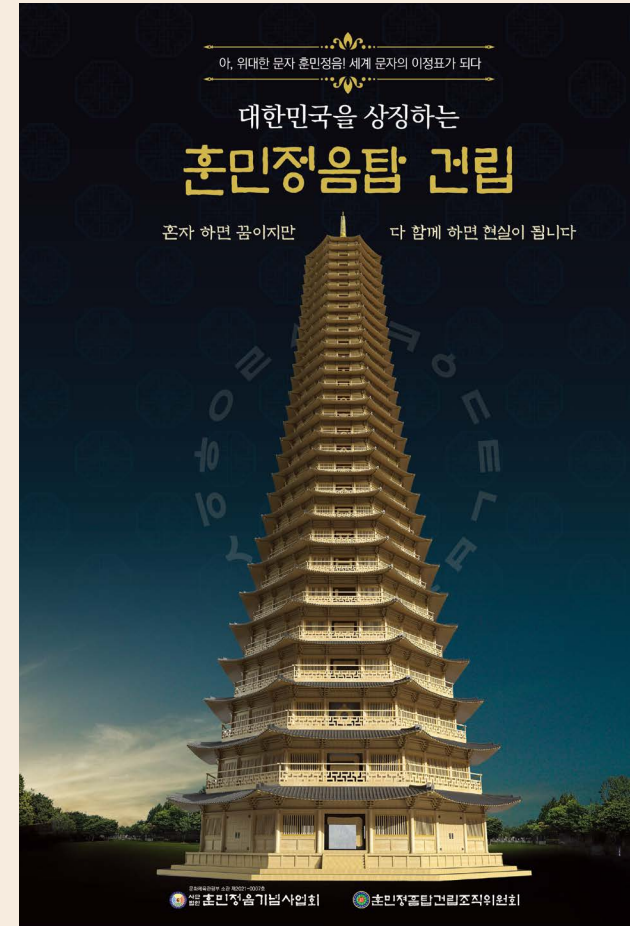


訓民正音の創製原理と創製に関する正しい理解と訓民正音に対する自負心と国際的な共感を積極的に広める

社団法人訓民正音記念事業会(理事長パク・ジェソン)は、訓民正音の偉大な価値を再発見し、訓民正音の創製原理と創製精神に対する正しい理解とその教育を通じて文字強国の誇りを伝承し、訓民正音の優秀性を宣揚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2021年2月25日に設立された。

韓国の文化体育観光部所管の社団法人である訓民正音記念事業会は、訓民正音に対する誇りと訓民正音の効用性についての国際的な共感を積極的に広げていこうとしている。ハングルは、世界に存在する70あまりの文字の中で唯一、文字の創製原理と創始者はもちろん、創製された年が知られており、ほぼすべての音を表現できる独創性を持つとされている文字で、これを整理した訓民正音の価値が世界的にも認められている。現在、事業会が進めている事業として、訓民正音詩文競作大会、訓民正音国際書道大会、訓民正音序文暗唱大会など様々な文化行事とともに、訓民正音に関する図書の発行や普及事業の推進、訓

民正音の専門家養成のための「訓民正音解説士」資格試験を実施し、その研修と教育を行っている。また、訓民正音の創製原理を理解し、文字強国の自負心を表すために「訓民正音科学試験」を実施している。この試験は、表音文字である『訓民正音』28字の製字原理を指導し、創製過程に関する歴史的事実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者を養成するための資格試験であり、<訓民正音解例本>と<訓民正音諺解本>の訓民正音創製過程に関する常識などについての正確な理論的知識を習得して、学習者が訓民正音の正しい国語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訓民正音』の全領域における指導や相談者の役割を専門的に担う人材の育成を目指すものである。さらに、文字文化観光大国を実現するために、訓民正音創製記念塔を建立するための準備をしており、訓民正音大学院大学を設立するための事業を進めている。訓民正音大学院大学では、訓民正音解説者を養成し、訓民正音の創製精神に基づく正確な言語生活を通じて伝統文化を継承・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能力を有する優秀な人材の養成を目指し、修士・博士課程として訓民正音学、文字文化学、文字芸術学、文字復元学など4つの学科を開設する予定である。



訓民正音を記念するための創製記念塔の建設を推進 ハングルの優秀性を知らせる道しるべとなる

事業会が創立当時から最も重要な事業として現在進めているのが、訓民正音創製記念塔の建設である。現在、ハングル文化都市である世宗特別自治市内に造成される予定の訓民正音創製記念塔は、千年先を見据え、韓国を象徴する28階建て、高さ108mの塔として建設され、2028年の完成を目標に推進している。階数の28は、訓民正音創製当時の文字数である28文

字、108mは訓民正音の序文である108文字をそれぞれ意味し、これにより訓民正音を広く知らせると同時に、ハングル文化都市世宗市の威信を高めることも建立の目的である。建築物の外装は、韓国の伝統建築様式である八角木塔技法で建てられる予定で、内部は現代の建築工法を活用し、各種の訓民正音の研究と資料、また展示館などとして活用する予定だ。また、記念塔の近隣は、ハングル文化都市を象徴する名所として造成する計画もある。

建立に対して各界から多くの祝辞と声援 民族に誇りを植える塔の建設のために大きな関心を望む

訓民正音創製記念塔の建立に対して、社会各界から祝辞とともに声援が寄せられている。訓民正音塔建立組織委員会の名誉組織委員長となっている第8代国連事務総長を務めた潘基文前総長は、「社団法人訓民正音記念事業会は今後、訓民正音に対する正しい理解を広く知らせることで文化民族の誇りと文化大国としての威信を高めるのに大きく貢献するものと期待している」と期待を示した。特に、潘前総長は、事業会が文化体育観光部所管の法人として設立されたことについて、事業会の目的事業が汎政府レベルの関心が持たれることにつながり、事業成功のための歴史的な第一歩になったと評価した。塔の建立についても、事業会が訓民正音創製を記念して象徴する塔の建設を目標に活動してきた労苦を高く評価し、「訓民正音創製記念塔が千年先を見据えた世界の文字の道しるべとなり、名実共に韓国を象徴する誇らしい観光名所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述べ、訓民正音創製記念塔の建設は時代的な使命であると評価した。常任組織委員長を務めている朴理事長も、「世界各地で劣悪な環境を克服しながら祖国の発展のために献身してきた在外同胞も、子孫万代にわたり韓民族の誇りを植えることができる訓民正音創製記念塔建立事業が成功裏に推進されるよう、大きな関心と多くの参加を期待している」と語った。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재성 이사장



▲국제한민족총연맹 김수철 총재와 박재성 이사장